



침묵의 절규

하마나카 아키 지음

사회 모순 날카롭게 파헤친 추리물

추리소설에서 2인칭 서술은 '전도된 미스터리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다. '범인이 누구인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미스터리들과 달리 그 자신이 사체로 발견돼 오히려 피해자라고 가정하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긴장과 서스펜스를 배가한다. 제16회 일본미스터리문학대상 신인상 수상작으로 제 88회 일본추리작가협회상 수미네이트를 기록한 추리소설이 나왔다. 하마나 아키의 '침묵의 절규'는 무거운 주제를 경쾌하게 풀어가는 '사회파 미스터리'다. 어느 날 댄스 주인공에게서 댄스에 변사체가 아냐는 신고가 접수된다. 현장에 나간 형사 아야노와 수사관들은 시체를 발견하는데, 이미 애완고양이에게 뜯어 먹혀 백골만 남은 상태다. 소설은 수많은 복선과 섬세한 문체, 깊은 나락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심리와 사회가 지닌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문학사상·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그대를 만나...

칭란쯔 지음

唐詩 거장들의 애뜻한 사연 담겨

두보, 이백, 왕유, 백거이, 맹호연, 원진, 한유... 중국 고전 문학의 정수로 손꼽히는 당시(唐詩) 거장들이다. 이들의 흔적을 좇다 보면 불멸의 명작 속에 담긴 그윽한 아름다움과 시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중국예술연구원에서 고전시가를 연구한 칭란쯔가 펴낸 '그대를 만나, 이 생이 아름답다'는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한자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애송되어온 당시의 묘미에 초점을 둔다. 당시에는 언어, 덕행, 자연, 문화, 역사 등 '궁극의 인간'을 향한 욕망이 곳곳에 보물과 같이 숨어 있었다. 저자는 당시의 거장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으고 그들의 드리워진 빛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섬세하게 펼쳐 보인다. 책에는 꽃씨처럼 만나 지음(知音)이 되고, 헤어진 뒤에는 문장을 매개로 그리움을 전했던 천재 시인들의 절절하고 애뜻한 사연들이 담겨 있다. < 쌤앤 커커스·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탁월한 운동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스포츠 유전자'의 저자 데이비드 엠스타인 최고 운동선수의 유전적 능력과 훈련을 통해 향상되는 능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 광주 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서 손연재 선수가 리본연기를 펼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

스포츠 유전자

데이비드 엠스타인 지음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꿈이다. 그렇다면 탁월한 운동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운동 능력은 타고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한 사례를 보자. 스웨덴의 스테판 홀름은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높이뛰기에서 우승했다.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가 된 것이다. 그는 여섯 살 때부터 20여 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했다. 무려 2만 시간이 넘는 기간 기량을 갈고 닦았다. 매년 우승 후보로 거론될 만큼 승승장구하던 그는 2007년 세계육상대회에서 바하마 출신 도널드 토머스에 1위를 내줬다. 당시 토머스는 높이뛰기를 시작한 지 고작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인이었다. 더구나 토머스는 기존 높이뛰기 선수들의 우아한 동작과 달리 허위적대는 폼으로 가로대를 넘었다. 이 같은 사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영상사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맬컴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에서 '1만 시간 법칙'을 강조했다. "어느 분야건 전문가로 성공하려면 1만 시간을 연습해야 한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이 한때 회자된 적이 있다. '1만 시간의 법칙'에 근거하면 위의 도널드 토머스 사례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고작 8개월을 연습한 신인이 2만 시간을 갈고 닦은 스타를 이긴 결과는 사뭇 흥미를 준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최고의 운동선수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탁월함의 비밀을 파헤친 책이 출간됐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화제를 일으킨 미국 '프로퍼블리카'의 기자 데이비드 엠스타인이 쓴 '스포츠 유전자'는 스포츠 과학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저자 역시 열정적인 육상 선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현장감이 살아 있다. 저자는 '최고의 자리를 위해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연습의 효과는 개인의 특성, 직업의 종류와 같은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유전학을 통해 설명하는데, 타고난 능력이 훈련을 통해 향상되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스포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 있다. 케냐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칼렌진족은 마라톤 강국 케냐의 상위 선수 75% 이상을 차지한다. 그들의 마라톤

성적은 독보적이다. 칼렌진족은 2011년 10월 열린 마라톤 대회 하루에만 32명이 2시간 10분대를 주파했다. 저자는 타고난 신체 능력 뒤에 숨겨진 잠재된 능력을 주시한다. 달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환경과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 따라오는 부와 명예가 마라톤 강국 케냐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즉 유전적 재능은 의지와 노력 없이 발휘될 수 없다는 논리다. 저자는 유전자의 힘만 맹신하는 결정론적인 입장을 고수하지도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높이뛰기 선수 도널드 토머스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그는 2007년 우승 후 직업 선수로 전향했지만 기량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6년 동안 1cm의 기록 경신도 없었다. 저자는 스포츠 심리학자 조 베이커의 말을 빌려 자신의 관점을 견지한다. "고된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유전자나 심리학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올림픽 선수들이 노력도 없이 어느 날 불쑥 등장한다고 생각할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저자가 책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는 완벽하게 적용되기에는 무리다. 어떤 유전자가 운동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재능을 확인 후에는 연습을 어떻게, 얼마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유전자와 스포츠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저자는 마지막 한 마디 말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즐겁게 운동을 하라" <엘리펀트·2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자본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데이트 유래와 의미



데이트의 탄생

베스리 베일리 지음

청춘의 특권과 동의어가 되는 단어는 무엇일까? 바로 '설행'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데이트는 '젊은 남녀가 집 밖에서 만나서 사귀는 친밀한 사적 행위'라는 본래의 형태를 나름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데이트 폭력이나 데이트 살인이니 하는 끔찍한 말과 역사가 전까지는) 청춘남녀가 만나는 행위를 '데이트'라

고 한다. 그러나 데이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사전에는 "이성끼리 교제를 위하여 만나는 일, 또는 그렇게 하기로 한 약속"을 뜻한다. 데이트의 유래와 의미, 변천 등을 명쾌하게 풀어낸 책이 나왔다. 서양에서 '데이트'는 그리 오래된 관습이 아니라고 한다. 미국 20세기 현대사 연구자이자 템플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 베스리 베일리는 산업화가 본격화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생겨난 신생 문화 데이트의 다양한 모습을 들여다본다.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널리 인정하는 연애 규칙 혹은 질서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규칙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대략 한 세기 전 자본주의가

본격 태동한 미국 하층민 거주지로 예상한다. 도시 하층민의 열악한 주거지는 초대나 방문을 하기에는 어려운 공간이었다. 반면 도시에는 댄스홀, 극장, 레스토랑, 영화관 등 오락거리가 즐비했고 이곳의 여흥문화에서 데이트가 싹텄다. 그렇다면 데이트 비용은 누가 지불할까? 데이트 비용의 지불은 남성적 권위, 즉 남성성이 '사는' 행위가 되었고, 여성은 그 남성에게 (성적) 호의를 '파는' 처지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돈을 매개로 한 이성교제, 이것이 데이트다. 저자는 "데이트 관습은 여성의 불평등을 코드화하고 남성의 권력을 승인했다"고 단언한다. <엘피·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글로벌 시대 평화적 공존 위한 철학적 투쟁



우리 집의 세계화

차인석 지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윤리는 무엇인가, 함께 사는 세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유네스코 철학 석좌교수 차인석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철학적 투쟁이 시작됐다. 글로벌 시대, 공존하는 삶을 위한 철학적 제언을 담은 '우리 집의 세계화'는 한국의 원로 철학자 차 교수가 여러 국

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논문 중에서 동일 주제의 여섯 편을 선별해 묶은 책이다. 책 제목 '우리 집의 세계화'는 저자의 성찰의 공간이 되는 핵심 개념이다. 세계를 '우리 집'처럼 편하게 느끼게 되는 것, 세계의 다름을 그 자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생활 세계'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저자의 학문적 목표는 현재의 다문화 세계에서 글로벌 윤리를 구성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존 듀이를 비롯해 칸트, 헤겔, 오이겐 핑크 등의 철학 사상을 현실 세계와 연결하고자 시도한다.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이보람기자boram@kwangju.co.kr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 **몸신**이다

이홍식 엄영란

조인희 변우민

MC/정은이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